

그리운 네고향

박 영 숙 Park, Young Sook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산천도 인결(人傑)도 간데없는 도시

- 평양시 수정(壽町) -

Longing for my hometown ; Pyong Yang City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면 필자의 고향은 이북땅 평양시 수정(壽町) 58번지. 서평양의 변화가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6남매를 거느린 우리 어머니는 살길을 찾아 이역만리 만주로,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평양으로의 귀향 그리고 1947년에 월남하여 서울에 자리잡은 것도 잠깐, 6.25 전쟁의 난리를 피해 제주도, 전라도로 피난보따리를 싸들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던 탓으로 우리 형제들은 어찌면 고향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박영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그러던 필자도 나이가 들면서 고향을 그리게 된 것은 명절때마다 벌어지는 귀향전쟁을 지켜보면서부터이다. 언제부턴가 전쟁을 치르며 돌아갈 고향이 막혀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아련한 기억만으로 고향을 그려야 하는 서글픔에 젖곤 한다.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 남한에 묻히면서 그곳을 찾는 것으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랜다. 그리고 그곳은 실향민인 나에게는 실제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내고향 평양은 동평양쪽으로 깨끗한 모래사장을 끼고 흐

르는 대동강을 사이로 동과 서의 두평양으로 나뉘어 있다. 평양은 기독교를 먼저 수용한 지역으로서 일찍 개명이 된 도시이다. 보다 많은 교육, 문화, 행정, 상업시설과 기독교 기관들은 서평양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다니던 정의여중은 광성중학교와 기독교병원, 교회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숲이 우거진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동강 풍치의 뛰어남은 시인들의 노래에서 읊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내 고향 평양하면 대동강 한복판에 배처럼 떠있는 감자밭인 양각도와 능수버들이 휘회 늘어진 능라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서평양은 모

관봉을 향해 뻗어난 강변도로 왼편에는 을밀대와 부벽루가, 오른쪽에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과 어우러져 운치도 일품이다.

필자는 내 고향 평양을 1947년 여름 이웃 할머니와 동생의 손을 잡고 남쪽을 향해 떠났다. 낯선 안내원에게 자식을 남쪽에 데려가 달라고 내맡기면서 불안해하며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서기까지 어머니가 혼드셨던 빨간 부채를 뒤로 남긴채였다. 우리 식구들은 세팀으로 나뉘어서 월남했다. 온

주고 있었다.

경제 우선 정책에 초라하게 밀려 명색만 유지하고 있는 한적한 공원 거리에서 호흡을 멎고 감용호씨의 <5월이 오면>을 되뇌어 본다.

<무언가 조용히 가슴을 흐르는 게 있다. 가느다란 여율이 되어 흐르는 것, 이윽고 그것은 흐름을 멎고 모인다. 이내 호수가 된다. 아름답고 정다웁고 부드러운 호수가 된다. 푸르름의 그늘이 진다. 잔무늬가 물살에 아롱거린다. 드디어 너, 아련다운 모습이 그 속에 비친다. 오월이 오면 호수가 되는 가슴 그속에 언제나 너는 한송이 꽃이 되어 방긋 피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의 음악과 시를 뒤로 하면서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혁명의 발원지였고 뜨거운 항도적 시민정신의 근원지를 떠나기에는 무언가 메울 수 없는 허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래 골포라 불리는 마산은 포상입국이라는 부족국가로 출발하다 가야저국(伽倻諸國)을 거쳐 신라시대에 이르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해방이후 마산부에서 시로 되었고 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의 선도적 도시로서 1993년에는 50만에 이르는 도시면모를 갖추었으나 현재는 43만의 도시인구로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한때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는 경제 개발의 촉매역할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경남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버거워 보일 정도로 도시의 한계를 느끼게 됨은 비록 도시 공원 녹지의 열악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 개발이라는 가치아래 천혜의 자



산호공원에서의 詩의 거리

연 자원인 바닷가는 산업화에 양보하게 되었고, 무학산 자락의 비좁고 개성없는 도시화는 자연녹지뿐 아니라 삶의 터전마저 떠나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최근 부쩍 늘어난 교통량으로 이미 도시의 교통 통제를 넘어선 제2의 혁명적 도시 같았다. 서둘러 마산을 떠나면 서도 관리 부서를 찾아 내일의 「가고파」와 「고향의 봄」이 나올 수 있는 청사진이나 들여보려 하였다. 그러나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부족 마저도 거론치 않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였거나 오염된 마산과 높다높은 무학산 자연림만 기대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지난날의 「가고파」와 「고향의 봄」 노래나 들으며 보행 감각을 익히고 있는 고혈압 환자들만의 거리에 만족하고 있든지...

그 노인분들의 불편한 몸은 결코 야구 찜과 같은 맵디매운 식사습관 때문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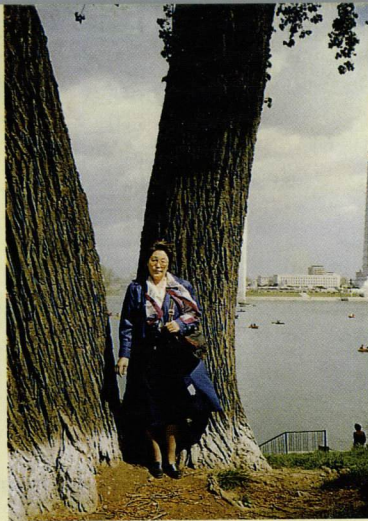
닐터인데...

이 글을 정리하면서 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유별나게 고향을 사랑하고 특유의 기질로 마산을 자랑하던 대학 동문으로, 불치의 병을 안고 지난 가을 임종에 즈음할 때에는 결국 고향 마산에 내려가 눈을 감았다 한다.

일생을 두고 찾았던 어린 시절의 마산 포구와 갈매기들을 내려다보며 젊었던 날 그렇게도 낭만적이었던 거리를 잠시나마 거닐다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친구가 있었기에 그림같은 도시 경관을 기대하고 찾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힘에 홀리어, 내일을 잃고 방황하는 도시에서 가까웠던 친구마저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 고향마저 잃고 간 친구의 명복이나 다시 한번 빌고 싶을 뿐이다. ☺



MY HOMETOWN

주암초대소 경내에서(왼쪽으로 부터 필자, 김원기 대표, 조세 형 권한대행) / 왼쪽

1991년 4월 평양방문시 대동 강변에서의 필자 / 오른쪽

가족이 함께 몰려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4년만인 내게는 운 좋게 내 고향인 평양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91년 4월말에서 5월초 8박9일동안 평양에서 열리게 된 국제의원연맹(IPU)의 제 85차 총회에 한국측 의원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월 29일 아침 9시30분 개성을 출발한 열차가 나무들이 잘려 나간 민둥산과 끝없이 이어지는 메말라 보이는 다락밭이 차장에 비치는 135km를 달려 오후 1시30분에 우리 일행은 평양역에 도착했다. 승용차로 역을 빠져나와 우리들의 숙소인 능라도가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기슭의 주암초대소(영빈관)를 향해 달린 길은 내가 어릴적 모란봉에 있는 동물원에 소풍갈 때 걸었던 여전히 아름다운 길이었다.

‘고향’ 하면 변함없는 산천과 친인척이 반겨주어 설레는 단어이다. 그런데 초대소에서 내려다본 능라도와 동평양의 모습은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수정 58번지, 내가 다니던 정의여중, 교회 그리고 병원에도 가보고 싶었다. 내 친구의 아버지가 지배인으로 있었고 당시 조만식 선생님이 연금되어 계시던 고려호텔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고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평양은 변해 버렸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평양은 6.25 당시 유엔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돼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새 모습으로 복구된 도시라고 한다.

변한 것은 산천만이 아니었다. 2백만 평양인구중 토박이는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집권층이 원치 않는 ‘복잡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되었고 6.25 당시 공습을 피해 지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양으로 향하면서 월남하지 못한 내 외가쪽 친척과 동창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허사였다. 옛말에 ‘산천은 유구한데 인

걸은 간데 없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찾은 고향은 산천도 인걸도 간데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44년만에 찾은 고향방문에서 무엇보다 나를 가슴아프게 한 것은 웅장한 건물숲을 이루고 있는 평양 시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이기 위한 위장된 무대로 설치되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맡겨진 역할과 대사를 되뇌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가슴이 메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곳이 내 고향이어서였을까. 나는 다른 일행들처럼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가슴아픈 내 고향 평양!

요새는 온통 나라의 밖과 안이 내 고향의 복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수십만명이 생명을 잃었거나 수백만이 아사 직전에 있다는 소식으로 들끓고 있다.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노랗게 탈색된채 길가에서 쓰레기더미를 뒤지거나 풀뿌리를 캐먹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그들을 돕자는 운동의 메아리는 얼어붙은채 냉랭하다. 그들이 동족이라는 사실 인정에는 하나가 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각양각색이다. 지난 50여년간의 분단상황이 이미 우리를 이민족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노래해오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과연 그러한가를 되새겨볼 문제로 다가왔다.

그리운 내 고향 평양, 명절 때가 되면 어떤 귀향전쟁을 치르고서라도 가보고 싶은 내 고향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오기 위해 오늘 이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

다.☹

평양귀향후 정의여중 재학중 1946년 겨울(뒷줄 오른쪽에서 2번째가 필자)



내리함 평양

의정서

우려할지라도, 고향을 잊고 돌아
볼지로는 못하겠다

그리운 대학교향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면 나의 고향은 이렇듯 태양이 수평(水平) 58도
저서 태양이 0도인 한북산에 자리한 곳이다. 이따기로 일각 양은
6남매를 거느린 우리네네는 삼십을 찾아 이역만리 만주로, 이천소거리
대리의 풍광과 함께 평양으로의 귀향 대신 1949년에 귀남하에
서울에 자리잡고자로 잡는 6.25 전쟁의 난을 피해 제주도로, 귀라도로
피난보따리를 싣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illegible]

내외항 평양은 동평양 쪽으로 개척한 모내시장을 끼고 흐르는
대동강을 사이로 동리서와 두평양으로 나뉘어 있다. 평양은 기독교를
먼저 수용한 지역으로서 일찍 개교회가 된 곳이다. 보니 많은 교우, 특히
청년, 상임직원으로 기독교 기관들은 서평양에 주로 모여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대동강 동쪽의 배변역에는 시인들의 노래에서 읊어지고 있기로
한대. 내외항 평양하면 대동강 한복판에 새하얀 대아는
잡초같은 양귀조와 능수버들이 휘휘 둘러친 능라도를 떠올리게 한다.
내외항 평양은 오랜 평으로 하고 배변역은 강변도로에는 모노볼과
유발대 그리고 부속을 거꾸러져서 이루고 있는 은하로 일품이다.

나는 비극항 평양을 1944년 여름 이곳에서부터 동생의 손을 잡고
남쪽으로 향해 떠났다. 남쪽 안대원까지 갔다가 남쪽으로 떠날 때 무려
네발 기어다니는 불쌍한 리대기 기러기 모퉁이를 두서너개 꺼내 어깨에 얹고
서둘러 떠났는데 부채를 두루 남겼는데 있다. 우리삼주류는 새침으로 내키어서
있었다. 거기서 한참을 쉬고서 내려가려 할 때는 위험한 모퉁이
여기 떠났더라.

2월 1일 부터 44(31)만에 2중으로 비교하면 평양강을 해안까지
기차로 103km. 1991년 4월 1일 현재 8월 7일 동안 평양강에서
유리까지 3개의 구간으로 (IFU)의 3085km 총 길이에 해당함. 유역 내의 강은

심정희의
우리에게

나를 내리
제일애움
광성공하고
기둥쌓고,
민회등이
함께 내리
하고 있어
숨이우거진
연락에
내리하
목가다.

그리운 내 고향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면 나의 고향은 이북 땅 평양시 수정(壽町) 58번지, 서평양의 변화가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6남매를 거느린 우리 어머니는 살 길을 찾아 이역만리 만주로, 이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평양으로의 귀향 그리고 1947년에 월남하여 서울에 자리잡은 것도 잠깐, 6.25 전쟁의 난리를 피해 제주도, 전라도로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던 탓으로 우리 형제들은 어쩌면 고향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나도 나이가 들면서 고향을 그리게 된 것은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귀향전쟁을 지켜보면서이다. 나에게서는 전쟁을 치르며 돌아갈 고향길이 막혀있다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아련한 기억만으로 고향을 그려야 하는 서글픔에 젖곤 한다.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 남한에 묻히면서 그 곳을 찾는 것으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랜다. 그리고 그곳은 실향민인 나에게서는 실제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내 고향 평양은 동평양쪽으로 깨끗한 모래사장을 끼고 흐르는 대동강을 사이로 동과 서의 두 평양으로 나뉘어있다. 평양은 기독교를 먼저 수용한 지역으로서 일찍 개명이 된 도시이다. 보다 많은 교육, 문화, 행정, 상업시설과 기독교 기관들은 서평양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다니던 정의여중은 광성중학교와 기독교 병원, 교회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숲이 우거진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동강 풍치의 빼어남은 시인들의 노래에서 울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내 고향 평양 하면 대동강 한복판에 배처럼 떠있는 감자밭인 양각도와 능수버들이 휘휘 늘어진 능라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서평양은 모란봉을 향해 뻗어난 강변도로의 왼편에는 울밀대와 부벽루가, 오른쪽에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과 어우러져 운치도 일품이다.

나는 내 고향 평양을 1947년 여름 이웃 할머니와 동생의 손을 잡고 남쪽을 향해 떠났다. 낯선 안내원에게 자식을 남쪽에 데려가 주라고 내맡기면서 불안해하며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서기까지 어머니가 흔드셨던 빨간 부채를 뒤로 남긴 채 었다. 우리 식구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서 월남했다. 온 가족이 함께 물려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4년만에 내게는 운 좋게 내 고향인 평양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91년 4월 말에서 5월 초 8박 9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게된 국제의원연맹(IPU)의 제85차 총회에 한국측 의원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월 27일 아침 9시 30분 개성을 출발한 열차가 나무들이 잘려 나간 민둥산과 끝없이 이어지는 메말라 보이는 다락밭이 차창에 비치는 1백 35km를 달려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일행은 평양역에 도착했다. 승용차로 역을 빠져나와 우리들의 숙소인 능라도가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기슭의 주암초대소(영빈관)를 향해 달린 길은 내가 어릴 적 모란봉에 있는 동물원에

소풍갈 때 걸어갔던 여전히 아름다운 길이었다.

<고향>하면 변함없는 산천과 친인척이 반겨주어 설레는 단어이다. 그런데 초대소에서 내려다본 능라도와 동평양의 모습은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변해있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수정 58번지, 내가 다니던 정의여중, 교회 그리고 병원에 가보고 싶었다. 내 친구의 아버지가 지배인으로 있었고 당시 조만식 선생님이 연금 되어 계시던 고려호텔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고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평양은 변해 버렸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평양은 6.25 당시 유엔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돼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새 모습으로 복구된 도시라고 한다.

변한 것은 산천만이 아니었다. 2백만 평양인구 중 토박이는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집권층이 원치 않는 <복잡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되었고 6.25 당시 공습을 피해 지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양으로 향하면서 월남하지 못한 내 외가쪽 친척과 동창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허사였다. 옛 말에 <산천은 유구한데 인결은 간데 없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찾은 고향 평양은 산천도 인결도 간데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44년만에 찾은 고향방문에서 무엇보다 나를 가슴아프게 한 것은 웅장한 건물숲을 이루고 있는 평양 시내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이기 위한 위장된 무대로 설치되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맡겨진 역할과 대사를 되뇌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가슴이 메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곳이 내 고향이어서였을까. 나는 다른 일행들처럼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가슴아픈 내 고향 평양!

요새는 온통 나라의 밖과 안이 내 고향의 복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었거나 수백만이 아사 직전에 있다는 소식으로 들끓고 있다.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노랗게 탈색된 채 길가에서 쓰레기더미를 뒤지거나 풀뿌리를 캐 먹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그들을 돕자는 운동의 메아리는 얼어붙은 채 냉랭하다. 그들이 동족이라는 사실 인정에는 하나가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각양각색이다. 지난 50여 년 간의 분단상황이 이미 우리를 이민족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노래해오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과연 그런가 한번쯤 되새겨볼 문제로 다가왔다.

그리운 내 고향 평양, 명절 때가 되면 어떤 귀향전쟁을 치루고서라도 가보고 싶은 내 고향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